

담당\_김미선

## (사)대한제과협회 (주)큐앤에스 업무 협의 자영제과점 SK텔레콤 제휴방향 조율

중앙회는 회원업소와 SK텔레콤간의 제휴를 추진하기 위해 SK텔레콤으로부터 멤버십 관련 업무를 이관 받은 (주)큐앤에스와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7일 중앙회에서는 정일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와 (주)큐앤에스 신만동 전무가 참가한 가운데 자영제과점 멤버십 추진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일석 사무총장은 자영제과점 멤버십 대상을 협회 회원에 한정해줄 것과 자영제과점이 가입 신청한 하면 멤버십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반해 (주)큐앤에스 측은 "가입대상을 협회 회원으로만 한정하면 또 다른 불공정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휴 마케팅이 이동통신사측과 자영제과점 모두에게 이익이 되려면 경쟁력 있는 이미지 관리가 필수"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사)대한제과협회와 (주)큐앤에스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3월 20일 2차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 지역별 예선 차질 없이 진행 호두경연대회 본선 날짜 변경

(사)대한제과협회는 2006 전국호두제품경연대회 본선 일자를 변경 공지했다. 당초 6월 15일(목)로 예정돼 있던 호두경연대회 본선은 경기장 사정으로 하루 연기된 6월 16일(금)에 개최된다. 본선 대회일자만 하루 연기됐을 뿐 올해부터 지역별로 치러지는 호두경연대회 예선은 대회 규정에 공시된 날짜와 장소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이다.

호두경연대회 참가를 원하는 회원업소 제과인은 오는 5월 16일(화)까지 해당 지회·지부에 비치된 참가신청서와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하면 접수 가능하고, 오는 5월 30일(화) 지역별로 개최되는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가 가려진다.



## Prism

자영제과점 경쟁력 강화 사업 본격화

## 중앙회 비대위 사업 인계 제휴사업 박차



(사)대한제과협회는 '이동통신사 제휴카드페이 및 생존권보호 제과인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관련 업무를 인계받아 비대위의 투쟁성과를 정리하고 후속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사)대한제과협회의 앞으로의 사업방향과 비상대책위원회의 후속투쟁이 영세 자영제과점의 경쟁력 강화로 서로 일치하는 점을 고려해 양측은 협회사업의 원활한 진척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기로 논의를 마쳤다.

이에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3월 8일 서초동 중앙회관에서 김영모 중앙회장을 비롯해 조병천 수석 부회장, 박찬회 부회장 등 중앙회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주, 조계중, 최원도 위원장 및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위 해단식을 갖고 지난 8개월 동안의 투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SK텔레콤 측이 요구하고 있는 제휴 신청 제과점의 선별 가입문제에 대한 논의를 펼쳐 테스트 기간의 단축 등 제휴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김영모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맞서 40%에 달하던 제휴 할인율을 10%로 낮추고 자영 제과점의 제휴 마케팅 참가 등 공정한 경쟁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은 대단한 일"이라면서 "사업도 내팽거 쳐둔 채 제과인 모두의 권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 비상대책위원회 8명의 공동위원에게 (사)대한제과협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대한제과협회는 현재 추진 중인 자영제과점과 SK텔레콤간의 멤버십 제휴 사업에 필요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회원 모두가 이번 투쟁의 성과를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의무화 및 쇼케이스 환경개선 등 업계 현실을 무시한 제도 및 법령에 대한 개선 건의를 꾸준히 추진하고 한창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트랜스지방 문제에 대해 관련 학계와 손잡고 협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우수수상자연수 등 한국-프랑스 기술교류 논의

## ENSP 파스칼 리앙조 교장 중앙회 방문

프랑스 국립제과학교(ENSP) 파스칼 리앙조(Pascal Liangeaud) 교장이 지난 3월 15일 중앙회를 방문해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과 양국 제과업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파스칼 리앙조 교장은 오는 6월 프랑스 ENSP 본교에서 진행될 우리나라 국내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연수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사)대한제과협회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대경대학과 수원여자대학 홍보 세미나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리앙조 교장은 "(사)대한제과협회의 긴밀한 협조 덕분에 세미나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됐다"는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한국 제과인들의 ENSP 연수를 위해 지금부터 만발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올해는 프랑스와 한국이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한지 120주년이 되는 해로 프랑스제과협회와 (사)대한제과협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마련하자"는 파스칼 리앙조 교장의 제안에 중앙회 김영모 회장은 "120주년 수교에 걸맞고 프로모션을 준비해 제과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다. 취재 정술이 기자

담당\_김미선

## 김종주 지회장 "회원업소 경쟁력 강화에 주력" 서울동부지회 제37차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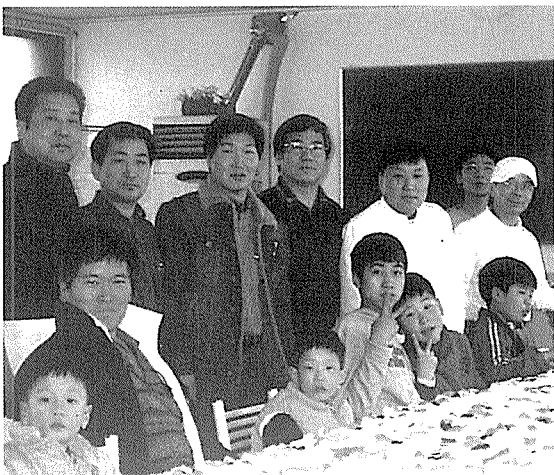


서울동부지회(지회장 김종주)는 지난 3월 10일 서울 동대문구 우리웨딩문화원부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동부지회는 지난해 사업

실적을 보고하고 수지 결산을 승인받는데 이어 200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원 만장일치로 심의 확정했다. 김종주 지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잃었던 자신감을 다시 찾게 됐다"고 전하고 "올해는 회원 업소 모두가 기술·마케팅·서비스 면에서 앞선 경쟁력을 갖추는 데 협회 차원에서 다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중앙회 김영모 회장, 조병천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지회장협의회, 협력업체 관계자,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신임 지부장에 안동훈 지부장 선출 정읍시지부 제12차 정기총회

정읍지부(지부장 안동훈)는 지난 3월 2일 정읍시 중앙회관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읍시지부 임원 개선을 통해 케익나라베이커리 안동훈 대표가 신임 지부장에 선출됐다. 이어 열린 임원 개진에서 태인제과 김선대 대표가 총무에, 로얄제과 김우택 대표가 재무에 각각 선임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정읍시지부는 원도우베이커리 매출 하락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신임 안동훈 지부장은 "앞으로 제과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기술 개발과 지부발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대한제과협회 지회·지부 인보사업 활발 춘천시지부 '과우회' 이웃사랑 실천

춘천시지부 소속의 제과인 모임 '과우회(菓友會)' 회원들이 10년 넘게 펼쳐온 이웃사랑이 지역사회에서 훈훈한 미담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과우회 회원들은 한 달에 한번 씩 아동복지시설 '애민원'을 방문해 과자와 빵을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이 이 같은 인보활동을 펼치게 된 까닭은 금방 만든 따뜻한 빵으로 이웃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자는데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과우회 회원들은 200여 만 원 상당의 회비를 털어 제빵용 믹서와 오븐 등 4대의 장비를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제빙기까지 마련해 여름이 되면 애민원 원아들을 위해 직접 팔빙수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과우회는 매달 둘째 주 일요일을 '이웃사랑의 날'로 정해두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민원에 나와 80~100명분의 과자와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과우회 현택용 회장은 "아이들과 어우러져 밀가루를 반죽할 때마다 나눔의 행복을 깨닫게 된다"면서 "앞으로 과우회의 이웃사랑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제과를 실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양성규 지회장 회원 단합과 노력 당부 강동·송파지회 제22차 정기총회



강동·송파지회(지회장 양성규)는 지난 3월 15일 서울 강동구 원일부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수 회원에게 각각 중앙회장상, 서울시지회장협의회회장상, 강동·송파지회장상을 수여한 데 이어 지난해 사업실적 보고 및 수지 결산 승인을 인

정받고 200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강동·송파지회 양성규 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유래 없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원부재료가 인상으로 지난 한해는 회원 모두 어려웠다"면서 "회원 모두가 희망을 갖고 지회 차원에서 다함께 노력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자"는 격려를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중앙회 김영모 회장, 주재근 부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지회장협의회, 협력업체 관계자,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이선구 지부장 "김흥진 전임 지부장 뜻 받들 터" 진해시지부 제13차 정기총회



이선구 신임 지부장

진해시지부(지부장 이선구)는 지난 2월 9일 황실부에서 부산·경남지역 협회 및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정기총회 및 지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진해시지부는 지난해 사업 실적을 보고하고 수지 결산을 승인받는데 이어, 200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어 열린 지부장 이·취임식에서는 김흥진 전임 지부에게 화환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흥진 전 지부장은 임기 동안 진해시지부의 열악한 실정을 도맡아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부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날 새로 취임한 신임 이선구 지부장은 "김흥진 전임 지부장의 높은 뜻을 받들어 협회 발전과 제과기술 향상에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